

차 례

결과보고서 요약문

2018년 통일기반구축 사업 결과보고서

1. 사업 내용

- 1) 당초계획
 - 개요
 - 추진배경 및 목적
 - 기본방향
 - 기대효과
 - 일정별 추진 세부계획
 - 참여인력
- 2) 실제추진 현황
- 3)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
 - 사업성과
 - 관련분야 기여도

2. 예산

- 1) 예산 계획
- 2) 실제 예산 집행

3.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

- 1) 자체평가
 - 사업평가
 - 미흡한 점(한계) 및 개선(보완)할 점
 - 향후 계획(내년 계획)
- 2) 건의사항
 - 사업 진행 관련
 -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
 - 기타

4. 관련자료

- 대표적 사업 실적

결과보고서 요약문

사업기관	간호과학연구소		
사업명	북한이탈주민의 일차간호요구도 조사 및 통일이후 일차간호 적정 제공인력 수급 분석		
사업책임자	성명	소속	직위
	김진현	간호대학	교수
사업기간	2018.4.1.~2019.2.28	사업비	

1. 사업목표

-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서의 모자보건 관련 경험을 탐구하여 북한 주민의 일차의료 서비스 요구를 파악하고 향후 모자보건 관련 남북한 통합의료체계의 방향성을 재고함.
- 현재 북한 간호인력 현황과 양성체계를 파악하고 통일 이후 북한의 적정 간호인력의 수요를 추계, 공급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통일 이후 북한의 일차의료 기반구축에 기여함.

2. 사업의 내용

-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포커스그룹 면담을 이용하여 북한 모자보건 관련 경험을 질적 분석함. 이를 바탕으로 북한 내 일차보건의료 현황을 확인하고 통일 대비 북한의 일차보건의료체계 회복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함.
- 문헌고찰, 북한이탈주민 면담, 전문가 자문을 통해 통일 이후 북한의 적정 일차간호인력 수급계획과 통합양성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함.

3. 사업의 성과

- '18.8.10. 제2회 통일 군간호포럼 학술발표
 - 제목: 통일을 대비한 안보와 군간호의 융합
 - 주제(발표자): 북한의 간호교육체계 분석 및 통일단계별 통합방안(김진현 교수), 통일초기 간호장교 역할과 인력수요 추계(정유미 교수)
- '18.8월~9월 통일대비 현 북한 간호인력 현황과 양성체계를 확인하기 위

한 북한이탈주민 및 전문가 자문(7인)

- '18.9월~10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모자보건 관련 경험 조사(16인)
 - 북한이탈주민 중 최근 10년 이내에 북한에서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를 출산하여 양육한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4개의 포커스그룹 면담 시행
- '18.11.27. 서울대학교 2018 통일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 발표
 - 주제(발표자): 통일이후 북한지역 적정 일차간호인력 수급방안(정유미 교수)
- '19.1.11.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14회 간호학술제 강연
 - 주제(발표자): 북한의 간호인력 양성체계와 통일이후의 간호교육체계 통합방안(김진현 교수)
- '19.1.15.~1.16. 2018년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사업 한중통일간호연구 세미나 개최
 - 주제: 연변 조선족 대상 간호교육 경험과 간호학 교과과정 논의
 - 장소: 중국 연변대학교 간호대학,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부
- '19.1.22. 2018년도 다문화건강학회 동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
 - 제목: 북한이탈주민의 불건강 경험과 문화 정체성
 - 주제(발표자): 통일이후 북한지역 적정 일차간호인력 수급 방안(김진현 교수),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모자보건 관련 경험(채선미 교수)

간호과학연구소

1. 사업 내용

1) 당초계획

□ 개요

- 사업명: 북한이탈주민의 일차간호요구도 조사 및 통일이후 일차간호 적정 제공인력 수급 분석
- 기관명: 간호과학연구소
- 총 사업비: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○ 추진배경

- 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서 북한 내 높은 모성 및 영아 사망률을 통해 북한의 낙후한 모자보건 현실을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. 1990년대 북한은 대내외적인 경제 침체로 이후 국영의료전달체계는 퇴색되고 의료자원의 극심한 부족으로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과 접근이 매우 어려워 국가로부터 더 이상 북한 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되지 못함. 의료진에 의한 지역주민 대상 보건교육은 지역주민의 자가관리능력 뿐 아니라 지역의 건강수준 향상에 이바지함. 그러나 북한 내 의료진 제공의 모자보건교육 실태나 일차의료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.
- 미래 한반도 인간안보의 핵심으로 통일 이후 남북한의 건강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함. 이에 북한 주민에게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보건의료 제공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통일한국시대의 국민의료비를 경감하는 것이 주 과제가 될 것임. 간호인력은 일차보건의료에 기반한 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가장 비용효과적인 필수인력임. 그러나 통일대비 의료인력 관련 기존연구는 간호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음.

○ 목적

-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에서의 모자보건 관련 경험과 요구를 파악하고자 함.

- 통일 이후 북한의 적정 간호인력 수급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일차보건의료 측면에서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기본방향

- 세부과제 1: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모자보건 관련 경험에 관한 질적 조사
 -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서의 임신, 출산, 영유아 양육 경험에 대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.
 - 연구대상자 선정기준: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에서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를 출산하여 양육한 경험이 있는 만 20세~50세의 부모
 - 자료수집방법: 3~5명의 부모로 구성된 포커스그룹 면담을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함. 자료 포화 시 면담을 중단할 것이고 대략 20명의 부모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함.
 - 자료분석방법: NVivo 12(질적자료 분석 프로그램)를 이용하여 주제분석을 시행.
- 세부과제 2: 통일 이후 북한지역 적정 간호인력 수급 전략 수립
 - 현 북한의 간호인력 양성체계와 교육체계, 활동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적정 간호인력 수급방안을 제안함.
 - 문헌고찰: 국제통계, 연구보고서, 발표자료, 단행본 고찰 등
 - 북한이탈주민 면담: 북한 의료실태의 현실적 접근을 위해 북한 주민이 경험한 의료서비스와 간호인력의 양성 및 교육체계 이해를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면담을 실시함.
 - 시나리오기법: 통일한국의 간호인력의 발생 가능한 수급불균형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에 시나리오 기법을 적용함.
 - 전문가 자문: 통일한국 간호인력의 미래상을 정책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속 가능한 통일한국 간호인력의 통합모델의 시안을 수정 보완함.

□ 기대효과

- 단기 기대효과
 - 북한의 모자보건 실태 및 모자보건 관련 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

- 북한 주민을 위한 모자보건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
- 북한 의료인력의 모자보건 관련 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
- 통일 이후 간호인력의 수급 현황 및 구조 이해
- 통일 이후 간호인력정책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
- 통일 이후 일차보건의료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적 합의 도출
- 중장기 기대효과
 - 북한 의료인력의 모자보건 역량 향상
 - 북한 주민의 모자보건 자가관리능력 증진
 - 북한 모자보건 건강수준 향상을 통한 통일 비용 절감
 - 간호인력의 적정 확보를 통한 의료접근성과 형평성 제고
 - 남북한 건강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 달성
 - 북한 취약계층의 건강결과 향상 및 사회안전망 구축
 - 국민의료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통일 비용 감소

□ 일정별 추진 세부계획

일 정	추진 내용
‘18년 4~5월	연구자료 수집을 위한 서울대학교 IRB 승인
‘18년 6~11월	세부과제 1: 면담 대상자 모집 및 자료수집, 자료분석과 결과 정리 세부과제 2: 북한 간호인력의 현황 및 양성체계 파악, 통일한국 간호인력의 적정 수급 분석, 지속 가능한 통일한국 간호인력 통합모델 개발
‘18년 11월	통일평화연구원 연합학술대회 사업내용 보고
‘18년 12~2월	연구결과 수정보완 및 보고서 제출

2) 실제 추진 현황

- 세부과제 1: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모자보건 관련 경험에 관한 질적 조사

○ 연구방법

- 연구설계: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서의 임신, 출산, 영유아 양육 경험에 관한 포커스그룹 면담을 실시한 서술적 질적 연구임.
- 연구대상: 원 계획서 상 대상의 요건이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에서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를 출산하여 양육한 경험이 있는 만 20세~50세의 부모였으나, 회상 편견(recall bias)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근 10년 이내 경험이 있는 자로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좁힘.
- 모집방법: 교회 목사님을 통한 목적적 표본추출방식, 눈덩이 표본추출방식 이용.
- 윤리적 고려: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시작 전 '18. 8월에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(IRB No. 1808/003-006)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의사와 익명성을 존중함.
- 자료수집: 면담 이전에 연구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, 연구참여자 선정요건,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방법에 대하여 설명문 및 동의서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구함. 포커스그룹 면담은 자택과 교회 회의실, 학교 회의실의 조용한 공간에서 이루어져 기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,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은 면담 전후 간단한 설문지에 참여자가 기입하도록 함. 면담 주요질문은 북한에서의 임신 경험, 출산 경험, 산후관리 경험, 자녀양육 경험, 북한의 모자보건 관련 경험의 다섯 개 주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짐. 면담 진행은 3명의 연구자가 담당하였으며 다른 연구자는 진행보조자로서 구술내용 녹음과 참여자의 면담내용 중 중요사항을 메모하였고, 면담 종료후 각 연구자와 보조자가 면담내용을 디브리핑함. 포커스그룹 면담은 '18. 9월~10월까지 이루어졌고, 면담 소요시간은 각 그룹 당 60분~90분이었음.
- 자료분석: 매 면담 종료후 분석은 시작되었고, 본격적인 자료분석은 자료포화 후 전사된 내용과 현장 메모를 사용하여 이루어짐. 주제 분석 방법(thematic analysis)에 따라 분석을 실시함. 분석된 자료는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간 확인과정을 거침.

□ 세부과제 2: 통일 이후 북한지역 적정 간호인력 수급 전략 수립

○ 문헌조사

- 각종 국제통계, 연구보고서, 발표자료, 단행본 고찰을 통해 북한의료의 특성과 전달체계, 남북한 건강수준의 격차 등 북한보건의료 현황 전반에 대한 자료 수집

○ 북한이탈주민 면담('18.8.2~9.29)

- 북한이탈주민 면담을 통해 북한 간호인력 운영 현황과 양성체계 자료 수집

- 대상: 북한 거주 당시 간호원이나 의사 경험이 있는 탈북자 6인과 미국시민권자로서 중국의 대학교수로 재직하며 북한지역 간호교육 경험이 있는 1인 (총 7인)
- 북한지역 적정 일차간호인력 수요·공급추계
 - 문헌조사와 북한이탈주민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북한간호인력 수급현황 제시, 통일 이후 북한지역 적정 일차간호인력 수요 추계, 통일 이후 북한간호인력 공급 방안 제안

3)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

□ 세부과제 1: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모자보건 관련 경험에 관한 질적 조사

- 연구결과
 -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
 -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6명이었음.
 - 대상자의 연령은 29~50세, 북한에서의 자녀 양육기간은 3~28년, 자녀의 재태기간은 36~40주로 출산 당시 자녀의 건강은 보통 혹은 매우 건강하였음. 참여자의 북한에서의 거주 지역은 함경북도가 8명(50%)으로 가장 많았고, 그 외 양강도 5명(31%), 평안도 2명(13%), 황해북도 1명(6%)이었음.
 - 인터뷰가 이루어진 포커스그룹은 5명의 어머니로 구성된 2개 그룹, 3명의 어머니로 구성된 1개 그룹, 2명의 어머니와 1명의 아버지로 구성된 1개 그룹의 총 4개의 그룹이었고, 4번째 면담에서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면담을 종료함.
 - 7개의 하부 주제와 3개의 주제가 도출됨.
 - ‘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전·산후 관리 시스템의 부재’
 - 산전·산후 의료시스템의 지역간 불균형: 거주지역에 따라, 특히 평양과 비평양 지역간 산전·산후 의료시스템의 차이가 심각함.
 - 비전문적 산전·산후 자가관리: 의료시설 부족 및 진료수준의 저하, 경제난으로 병원 검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의 비전문적인 산전 자가관리가 비일비재함.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의 가정분만이 보편적이고, 비 의료인에 의한 가정분만도 위협에 대한 지각없이 행해지고 있음. 병원 이용 시 산원의 환경도 매우 열악하여 조기퇴원을 요하고 산후조리는 개인의 몫임.
 - ‘열악한 아동보육지원체계’
 - 아동을 위한 육아용품 및 영양 지원 부재: 아동 양육에 필요한 기저귀 등 국가에서의 물품 지원이 부족하여 천 기저귀의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음. 분유 역시 고가이고 국가에서의 일반 아동을 위한 영양 지원이 없어 대개 1~2년의 모유수유를 하는 등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영양 공급을 하고 있음. 아동의 영양

보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.

- 막대한 역할 부담을 지닌 여성을 위한 자녀양육 지원의 부재: 남존여비사상의 잔재로 가정 내 수입을 위한 경제활동, 국가 동원 및 집안일,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을 위한 자녀양육 지원이 비체계적임. 국가 경제난으로 영유아를 위한 직장 탁아소의 운영은 쉽지 않고 가족을 위한 문화생활을 누릴 여유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- '부적절한 모아건강관리'

- 국가 무료 예방접종시스템의 지역간 불균형: 영유아를 위한 국가 무료 예방접종 시스템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. 인민반으로부터의 정기적 공지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, 그러지 못해 접종 시기를 놓치는 지역도 다수임.
- 모자보건교육 및 성교육의 부재: 모아건강을 위한 국가에서의 체계적인 사전 교육 시스템이 없어 모아건강은 가정 내의 책임임. 의료기관보다 장마당을 이용한 가정 내 불법적인 의료행위(자가진단 및 처방, 주사)와 민간요법이 성행함. 가정 내에서의 임신중절 및 소파술, 피임술(루프)이 잦음.
- 임신 중 영양 불량으로 인한 출산후 자녀의 영양장애: 임신 중 영양섭취가 태아와 출산후 자녀의 영양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산모의 순산여부를 좌우함.

○ 결론 및 제언

-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일차보건의료체계 회복을 위해 임신 및 출산 후 모아건강을 위한 교육 시스템 마련이 절실함.
 - 구전으로 내려오는 관습에 의존하는 비전문적인 모아건강관리 방식을 타파
 - 모아건강을 위한 산전·산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체계 마련
 - 여성의 생리적 주기에 맞는 시기적절한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
- 여성의 임신 중, 산후 영양상태가 영유아기 자녀의 영양장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모아 영양 지원이 요구됨.
- 남녀 성불평등이 만연한 북한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육아에 대한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.
 - 임신, 출산과정이 여성의 책임으로만 치부되는 남성 우월적 세습이 근절되어야 함.
 - 북한 내 임신·출산·육아과정에서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필요함.

□ 세부과제 2: 통일 이후 북한지역 적정 간호인력 수급 전략 수립

○ 연구결과

- 북한의 간호인력 수급추계 결과 약 3만명~5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됨.

일차간호인력 수요 추계	일차간호인력 공급 현황		공급 부족 인원
	준의(3년 교육)	조산원(3년 교육)	
84,160명~ 105,200명	45,000명	7,574명	31,586명~ 52,626명

- 북한의 적정 간호인력공급을 위해 단계별 간호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함.
- 제2회 통일 군간호포럼 발표
 - 일시/장소: '18.8.10.(금) 12:10-12:50/ 국방대학교 컨벤션센터
 - 주제/발표자: 북한의 간호교육체계 분석 및 통일단계별 통합방안/ 김진현 교수
- 서울대학교 2018 통일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 발표
 - 일시/장소: '18.11.27.(화) 10:30-11:45/ 서울대학교 교수회관
 - 주제/발표자: 통일이후 북한지역 적정 일차간호인력 수급방안/ 정유미 교수
-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14회 간호학술제 강연
 - 일시/장소: '19.01.11.(금) 14:00-15:00/ 방송대 강당
 - 주제/발표자: 북한의 간호인력 양성체계와 통일이후의 간호교육체계 통합방안 / 김진현 교수
- 다문화건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
 - 일시/장소: '19.01.22.(화) 13:00-18:00/ 중앙대학교 간호대학
 - 주제/발표자: 통일이후 북한지역 적정 일차간호인력 수급방안/ 김진현 교수
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모자보건 관련 경험/ 채선미 교수

□ 연구결과 세미나 : 중국 연변간호대학의 조선족 간호교육 경험

- 2018년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사업 한중통일간호연구세미나 개최
 - 일시: '19.01.15.~01.16.
 - 장소: 중국 연변대학교 간호대학,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부
 - 참석자: 연변대학교 최향숙 학장, 최문향 부학장 외 /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오경옥, 김미향 교수 /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, 채선미, Heeseung Choi 교수, 박미화
 - 주제: 통일 대비 연변대학교와 연변과학기술대학교의 조선족 대상 간호교육 경험 과 간호학 교과과정 논의

□ 관련 분야 기여도

-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모자보건 관련 경험에 관한 질적 조사
 - 북한사회의 실제 일차보건의료 현황과 일차의료 서비스 요구를 확인함으로써 북한의 모자보건 관련 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교육 시스템 구축에 앞서 기본 방향을 제시함.
 - 북한의 일차보건의료체계 회복의 방향성 재고를 통해 통일 대비 남북 보건의료 통합에 기여함.
- 통일 이후 북한지역 적정 간호인력 수급 전략 수립
 - 보건의료분야 통일담론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간호분야, 특히 북한지역 일차보건의료 기반구축을 위한 간호인력 활용의 현실적 가능성과 정책효과를 제시한 최초의 사업으로 향후 통일과 관련된 간호연구의 중요한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됨.

2.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

1) 자체평가

□ 사업평가

- 사업의 적절성
 - 통일 대비 일차의료 기반구축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개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연구를 설계, 진행하였음.
 - 북한 내 모자보건 관련 실태에 대한 기존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모자보건 관련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통해 풍성한 실황을 전달하고 북한의 모자보건 현실을 이해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은 의의가 있음.
 - 통일 이후 북한의 적정 간호인력 수급계획 및 통합양성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 측면에서의 남북한간 상호동질성 회복을 위한 일차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재고하고 비용효과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은 의의가 있음.
- 사업의 효율성
 - 북한 내 일차보건의료의 실제 현황 및 북한 주민의 모자보건 관련 일차의료 서비스 요구를 확인, 통일 이후 적정 간호인력의 수급계획과 양성방안을 구

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음.

○ 사업의 영향력

- 북한의 모자보건 현실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시스템 마련의 토대가 될 것임.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모아건강을 위한 자기관리역량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모자보건 건강수준이 향상, 통일한국의 보건의료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함.
- 북한 내 일차의료제공의 필수인력으로서 간호인력의 적극적 활용은 남북한의 보건의료부문의 발전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와 고용기회 확대, 양성평등 달성 등 사회통합기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함.

○ 사업의 발전가능성

-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연구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간호인력 및 간호서비스 제공에 대한 최초의 실태조사 연구라는 점에서 향후 후속 연구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음.
-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중 간호인력 양성체계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 국내 연구 환경을 고려할 때, 기본적인 실태조사 단계부터 시작하여 심층분석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연구로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됨.

□ 미흡한 점(한계) 및 개선(보완)할 점

- 체계적인 모자보건교육 시스템을 통한 모아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 습득에 앞서 지식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에 결론 도출에 있어 현실적 한계가 있음. 이에 북한 내 보건복지 개발 및 복구를 위한 국제적·남북한 간 공동협력이 요구됨.
- 북한의 간호인력과 간호교육체계에 대한 참고문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부 탈북자의 증언에 의해 재구성된 연구이므로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자료의 대표성과 정확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.
-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연구 결과 도출 필요.

□ 향후 계획(내년 계획)

- 2019년도에 2차년도 연구를 추진하여 2018년 1차년도 연구결과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완성도 높은 연구결과를 생산하고자 함.
- 특히 북한의 심각한 모자보건 실태와 간호인력 운영체계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후속연구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에 집중하고자 함.

2) 건의사항

사업 진행 관련

- 통일연구사업의 특성상 단년도 연구에서 완성도 높은 연구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다년도 사업으로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.
- 연구 초기 단계에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본부가 마련해주면 연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음.

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

- 해당사항 없음

기타

- 해당사항 없음

3. 관련자료

대표적 사업 실적

- 다문화건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의 사업결과물 발표